



비자 해결된 오승환
오늘 미국으로 출국

3면

프로농구 경기 결과	10일
☉ KEB하나은행	66 : 53 신한은행
☉ 전자랜드	83 : 60 동부
☉ 오리온	78 : 69 SK
프로배구 경기 결과	10일
☉ GS칼텍스	3 : 1 현대건설
☉ 한국전력	3 : 1 우리카드

‘ML 삼국지’ 스토리가 달라진다

한국인 빅리거, 일본-대만 메이저리거들과 경쟁·공존의 파트너십



메이저리거는 아시아 3국 한국, 일본, 대만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경쟁으로 뜨겁다. LA 다저스에서 한술밥을 먹게 된 류현진과 일본 투수 마에다 겐타, 그리고 내셔널리그에서 맞대결이 예상되는 피츠버그의 강정호와 마이애미의 대만 투수 천웨이인(왼쪽부터). AP뉴시스

박병호·김현수·이대호 등 역대최대 7인 중장거리 타자 대기등장...파워 日 압도 추신수-다르빗슈, 이치로-천웨이인 등 아시아 3국 스타들 연할 전선도 불거리

수출지향적 산업구조에 국가경제가 좌우되는 한국, 일본, 대만은 세계시장을 놓고 합종연횡을 반복하는 경쟁의 속명을 안고 있다. 야구도 쏙 빼달았다. 올림픽,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같은 국제대회에서 세계로 나가는 판문을 통과하려면, 일단 이들 세 나라끼리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러나 세계는 삼국을 아시아권이라는 틀로 묶는 시각도 짙다. 즉, 한나라가 잘 나아가면 다른 나라들이 편승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구도가 야구의 최고수들이 집결하는 메이저리거에서도 2016년 ‘역대급’으로 심화될 전망이다.

●ML의 한국세 확장이 증명하는 것들
기존의 류현진(29·LA 다저스), 추신수

(34·텍사스), 강정호(29·피츠버그)가 버티고 있고, 박병호(30·미네소타), 김현수(28·볼티모어),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이대호(34·시애틀)가 가세했다. 메이저리거를 노리는 숫자도 역대 최대이지만, 그동안 일본야구조차 변변히 뿔지 못했던 중장거리 타자들이 대거 등장한 것이 눈에 띈다. 일본보다 후발 주자였지만, 그 이상의 잠재력을 터트리며 추월하는 한국경제가 예상된다.

일본의 현역 빅리거 타자는 스즈키 이치로(43·마이애미), 아오키 노리치카(34·시애틀), 가와사키 무네히로(35·시카고 컵스) 정도다. 정교하고 빠른 선수만 살아남았다. 과거 일본 홈런왕 나가무라 노리히로가 도전했지만, 냉대 속에 쫓겨났다. 그 미개척 영역에서 KBO리그 홈런왕 박병호를 비롯해 이대호, 강정호 등이 위대한 도전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추신수를 제외한 6명은 모두 KBO리그를 경험한 선수들이다. 이제 한국야구의 ‘S급’ 인제는 일본야구 이상의 고평가를 받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경쟁과 협력이 뒤얽힌 아시아 삼국지

일본의 S급 투수의 메이저리거 입성은 이제 거의 정해진 코스가 됐다. 다나카 마사히로(28·뉴욕 양키스), 우에하라 고지(41), 다자와 준이치(30·이상 보스턴), 다르빗슈 유(30·텍사스), 이와쿠마 히사시(35·시애틀)에 이어 올 시즌을 앞두고 마에다 겐타(28)가 다저스에 합류했다. 오타니 쇼헤이(22·시애틀)도 대기하고 있다. 추신수-다르빗슈, 류현진-마에다, 이대호-이와쿠마-아오키, 이치로-천웨이인(31·마이애미) 등이 뭉치는 연합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 왕젠민(전 뉴욕 양키스)에 이어 대만 빅리거의 명맥을 잇는 좌완 천웨이인은 5년 8000만달러의 계약을 끌어내 박찬호(전 텍사스)가 보유했던 아시아 투수 최고연봉 기록을 깰다. 야구는 ‘하나의 중국’ 외교노선 탓에 국제무대에서 철저히 소외된 대만이 존재를 어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다.

메이저리거 스프링캠프는 2월 중순 시작된다. 단체훈련을 거쳐 3월부터 시범경기에 돌입한다. 아시아선수들의 늘어난 숫자만큼 한국, 일본, 대만 팬들의 관심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명준 기자 galzby@donga.com

우리銀, 28경기만에 우승 ‘난공불락’ 막강 주전의 힘

위성우 감독 “중위권 싸움 덕도 봤다”



우리은행이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4연패를 달성했다. 우리은행은 7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6라운드 KB스타즈와의 홈경기에서 64-58로 이겼다. 24승4패를 기록한 우리은행은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하며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했다. 28경기는 여자프로농구가 단일시즌으로 바뀐 이후 정규리그 최소경기 우승 확정이다. 우리은행은 타팀들의 집중전제에도 압도적 기량으로 일찌감치 정규리그 우승트로피를 챙기며 ‘확실한 1강’의 면모를 과시했다.

●난공불락의 막강 주전 멤버

우리은행은 선수층이 두껍지 않지만 확실한 주전 멤버를 보유했다. 포인트가드 이승아, 슈팅가드 박혜진, 스포포워드 임영희, 센터 양지희 등 사실상 국가대표급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시즌 초반 이승아가 부상 후유증으로 많은 시간 출전하지 못했지만, 이은혜가 포인트가드 역할을 충실히 해주면서 1위를 질주했다. 수비에 장점을 지닌 우리은행은 외국인선수로 득점력이 좋은 포워드 웨키나 스트리클렌을 뽑았다. 시즌 초반 국내선수들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을 때 스트리클렌을 앞세워 승리를 챙겼다. 스트리클렌은 10일 현재 경기당 18.18점으로 득점랭킹 1위에 오르며 우리은행에 날개를 달아줬다.

●치열한 중위권 싸움 덕까지 본 우리은행

우리은행 위성우(사진) 감독은 “이전 3시즌보다 정규리그 우승 페이스가 빠르다.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 중위권 팀들이 물고물린 덕을 본 것 같다”며 웃었다. 위 감독의 말처럼 올 시즌 중위권 싸움이 매우 치열했다. KDB생명만 1·2라운드에 걸쳐 장기 연패에 빠지며 최하위로 내려앉았을 뿐 KEB하나은행, 삼성생명, KB스타즈, 신한은행 등 4팀이 5라운드 초반까지 2~5위를 오르내렸다. 우리은행은 그 덕에 초반부터 독주할 수 있었고, 조기에 정규리그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위 감독은 “여자프로농구가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됐다고 하지만 플레이오프 진출이 유력한 KEB하나은행과 삼성생명의 경기력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타이틀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은 늘 존재하지만 잘 준비해보겠다”며 통합 4연패 달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은행 MVP 3파전 12면 최형석 기자 ghyong@donga.com

‘베테랑’ 류승완 감독 영화처럼 훈훈한 기부

쌍용차 해고노동자 위해 남몰래 선행

영화 ‘베테랑’의 류승완(사진) 감독이 남몰래 기부를 실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류승완 감독은 지난해 12월 초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심리치유 공간인 ‘와락’에 적지 않은 금액을 기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시기 경기도 평택시 외곽센터를 직접 찾아 해고노동자 자녀들에게 ‘밥차’를 선물해 함께 시간을 나눴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운동화를 선물하고 싶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고 밝혔다.

류승완 감독은 ‘베테랑’으로 1341만 관객을 동원, 지난해 개봉작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거대 재벌(유아인)로부터 희생된 화물차 노동자(정용인)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형사(황정민)의 활약을 통해 관객을 사로잡는 내용의 편에 서서 절대 강자를 응징하는 내용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류승완 감독의 기부는 영화 속 상황과 묘하게 겹쳐 더욱 시선을 끈다. 영화 수익의 일부를 실제 노동자를 돕는 데 썼기 때문이다. 사실 류 감독은 이미 지난해 10월 자선재단 ‘차카게살자’를 발족하고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예고했다. 가수 이승환, 방송인 김제동, 웹툰 작가 강풀 등과 함께 뜻을 모으며 “강자에게는 당당함으로, 약자에게는 겸손함으로 함께하려 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차카게살자’가 내건 공동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쌍용차 해고노동자 자녀 200명 지원’이다. 류 감독의 기부 역시 이에 따른 것으로, 향후 김제동 등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식의 기부를 펼칠 계획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한편 ‘베테랑’의 제작자이기도 한 류 감독은 설 명절을 앞둔 3일 출연진에게 ‘보너스’를 지급했다. 1월 말 ‘베테랑’ 투자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와 수익 배분 및 정산을 마치면서 출연배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안녕하세요, 텔런트 김 형일 입니다.
저도 세월이 흐르니까 밤이 무서울 때가 있더군요, 하하,
그런데 '뉴맨' 을 만나고부터 밤이 기다려 집니다,
밤을 기다리게 하는 '뉴맨' ! 남자에게 최곱니다!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수술없이 강한남자 뉴맨!!

동.서.고.금. 남자의 힘!

수세기 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남성들은 약해져 가는 성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육이나 실리온 등으로 만든 링을 사용해 왔습니다.
'뉴맨'은 이러한 기존 링을 모토로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효능과 안전성은 극대화시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남성 성기능 강화용 링'이라는 명칭의 발명특허를 획득 하였습니다.

왜소하고 빠르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기강직도도 약해지고 중간에 시든다는 현상으로 고민인 남성들에게 사용즉시 더 크고 강하며 중간에 시들지 않고 보드오래 사랑을 나누도록 확실한 효과를 드립니다.

2005년 첫 출시 후 현재까지 11년 지속 성장, 일본과 중국에 지사 설립, 전 세계 20여개국 수출, 누적고객 120만이라는 기적같은 성공을 이룬 '뉴맨'은 힘에 있어서는 최고의 남자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관심사이즈

6.5018	주인 제작
6.5cm	1호
6.8cm	2호
7.1cm	3호
7.4cm	4호
7.7cm	5호
8cm	6호
8.3cm	7호
8.6cm	8호
8.9cm	9호
9.2cm	10호
9.5cm	11호
9.8cm	12호
10.1cm	13호
10.4cm	14호
10.7cm	15호
11cm	16호
11.3cm	17호
11.6cm	18호
11.9cm	19호
12.2cm	20호
12.5cm	21호
12.8cm	22호
13.1cm	23호
13.4cm	24호
13.7018	주인 제작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 뉴맨홈페이지에 2,000건 이상의 후기가 있습니다.

누적고객 120만! 20여개국 수출!

15일 사용 후 불만족시 이유없는 반품, 전액환불!

11년간 지속된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T. 1588-3346, 010-8020-3346

서울시 서초구 배우로9길 20 (우면동) (주)케이앤제이뉴맨
동탄하이테크2015-서울서초-170호

· 중국지사 T. 0433-286-5031
· 일본동경지사 T. 03-6233-8994